

조선 빅3, 연일 수주 '낭보'... 연간 목표치 60% 달성 '순항'

LNG선 중심 수주물량 확보 박차
한국조선해양, 목표치 78% 육박
대우조선해양, 올해만 18척 수주
삼성중공업, 최대 규모 수주 따내

국내 조선업계가 연일 수주 소식을 전하며 올 상반기에만 연간 수주 목표치 60%를 넘어섰다. 특히 조선 '빅3' 가운데 가장 낮은 수주 실적을 기록한 삼성중공업은 최근 조선업 사상 최대 규모 선박 수주 계약을 확보하며 추격에 나서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이날 버뮤다 지역 선주로부터 17만4000㎥급 LNG 운반선 12척을 수주했다. 수주 금액은 3조3310억원으로 조선업 역사상 단일선박 건조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지난해 3월 삼성중공업이 세운 종전 최대치인 2조8000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20척 계약규모를 뛰어넘은 것이다.

또 삼성중공업은 아프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2척을 추가로 수주하는 등 하루에만 3조9000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이는 삼성중공업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59%에 달한다.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수주 물량은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은 카타르 LNG 프로젝트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020년 6월 카타르에너지(옛 카타르페트롤리엄)와 국내 대형 조선 3사는 LNG 운반선 선포 계약합의를 체결하며 관련 물량이 발주되고 있다. 이달 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모두 카타르 프로젝트 관련 LNG선 수주를 개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33척, 63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연간 수주

목표(88억달러)대비 72%에 해당한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은 연초부터 꾸준히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치의 77.6%(111척, 135억4000만달러)로 가장 높으며, 대우조선해양은 66.6%(26척, 59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조선업체들이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

주 물량을 대거 확보하면서 실적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LNG 운반선 신조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1척당 3000억원을 돌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월까지 수주한 LNG운반선은 1척에 불과했지만 올해들어 현재까지 18척을 수주했다. 전체 수주 금액을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인 현대상호중공업도 LNG선 기

술 경쟁력을 앞세워 올해 대형 LNG선 수주량은 70척을 넘어선 상태다.

에프엔가이드는 한국조선해양의 올 2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한 4조3871억원, 영업이익은 370억원으로 전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2분기에 8973억 원의 영업이익자를 낸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역시 올 2분기 매출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40.6% 증가한 1조5037억원, 4% 증가한 1조7834억원, 영업이익은 각각 252억원, 658억원 적자가 전망된다. 지난해 2분기에 각각 1조74억원, 4379억원의 영업이익자를 낸 것을 비교하면 적자 폭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계가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을 중심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체질 개선에 성공한 모습"이라며 "선박 배출 탄소 감축 목표가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향후 친환경 선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후반기 가격 인상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조선업계의 실적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중 메디플러스솔루션-교보생명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공동개발 '맞손'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추진

현대중공업그룹의 모바일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인 메디플러스솔루션이 교보생명과 손잡고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을 추진한다.

메디플러스솔루션은 최근 서울 교보생명 본사에서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인 HD현대, 교보생명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상호투자 기반의 전략적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 김완수 HD현대 신사업추진실장,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 조규식 상무, 김중훈 상무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상호투자 기반의 전략적 협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부지훈 HD현대 상무(왼쪽부터), 배윤정 메디플러스솔루션 대표이사, 김완수 HD현대 신사업추진실장,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 조규식 상무, 김중훈 상무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상호투자 기반의 전략적 협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메디플러스솔루션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의 개발을 맡고, 교보생명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기획과 영업을 담당한다. 또 HD현대와 교보생명은 현대중공업그룹 및 교보생명그룹 임직원의 자발적 지원을 통한 실증연구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솔루션은 ▲영양관리 ▲운동관리

▲수면관리 ▲복약관리 ▲혈당·혈압관리 등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메디플러스솔루션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특히 기업 임직원용(EAP) 솔루션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마음건강관리 기능도 더해질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그룹, 스타트업 보증지원 팔 걷어

SGI서울보증과 MOU
ESG 파트너십도 맺어

현대자동차그룹이 SGI서울보증과 손잡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앞장선다.

현대차그룹과 SGI서울보증은 스타트업 보증지원·ESG(환경·사회·지배구조)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에서 분사하거나 투자한 스타트업은 각종 인허가나 계약수주에 필요한 인허가보증보

험·이체보증보험 상품을 따로 담보 없이 신용으로 쓸 수 있게 됐다. 특별 신용 한도는 2년간 5억원이다. 이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봤다.

SGI서울보증은 스타트업을 위해 사업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경영컨설팅 보고서 등 신용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돕는다. 법정외교육요이나 직무 관련 콘텐츠 임직원교육도 한다. SGI서울보증은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업무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성운 기자

LG, 지구촌 곳곳서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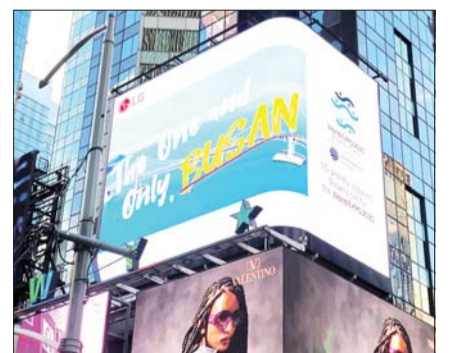
뉴욕·런던 중심서 홍보영상 상영

LG가 미국 뉴욕, 영국 런던의 랜드마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사격한다.

LG는 21일(현지시간)부터 뉴욕 타임스퀘어와 런던 피카딜리광장에 있는 전광판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타임스퀘어는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150만명에 달하는 미국 뉴욕의 대표적인 명소다. 피카딜리광장도 영국 수도 런던의 최대 변화가다.

이번 영상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상영됐다. 글로벌 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MICE) 도시로서 부산의 매력을 '에너지(ENERGY)', '모험(ADVENTURE)', '다양성



LG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DIVERSITY)', '아름다움(BEAUTY)', '예술(ART)', '당신(YOU)' 등 여섯 가지 키워드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또 해운대, 광안대교, 백스코, 감천문화 마을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적, e스포츠대회, 국제 콘퍼런스, 예술 공연 등이 활발히 열리고 있는 부산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담았다.

/김재용 기자 juk@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 고객전담 서비스

삼성전자, 수리 기사 1일 이내 방문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BESPOKE Infinite Line)'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피니트 서비스'를 22일부터 도입한다.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은 지난 2월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슈퍼프리미엄 주방가전으로 최고의 성능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인피니트 서비스는 제품 제조에서 설치, 사후관리(AS)까지 전 단계에 걸쳐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선 제조 부문에서는 핵심 제조 공정에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배치해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을 추구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처음 마주하는 설치 단계에서도 우수한 기술과 경력을 갖춘 '인피니트 전담팀'이 투입된다. 전담팀은 제품 설치뿐만 아니라 홈 IoT에 의

속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SmartThings Home Life)' 연결을 지원하며, 고객이 요청하면 사용 설명까지 제공해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며 더욱 편리한 제품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불편 사항이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담 수리 기사가 1일 이내 방문을 원칙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다만, 접수 이후 1일 이내 방문이 원칙이나 성수기에는 상황에 따라 1일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허정운 기자 zelkova@